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

Voices in Bloom  
**합창, 피어나다**

---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

# Voices in Bloom

# 합창, 피어나다

---

2025년 4월 16일(수) -  
4월 17일(목) 19:30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연령

2018년 이전 출생자(2018년생 포함)

서울시합창단  
SEOUL METROPOLITAN CHORUS

합창, 그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sejongcenter\_smchorus

  서울시합창단

서울시합창단 

새봄, 꽃처럼 피어나는 합창의 향연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

Voices in Bloom

# 합창, 피어나다

포근한 봄기운처럼 마음속에 스며드는 하모니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한 리듬의 **그레고리안 성가**,  
멘델스존의 섬세한 합창 기법이 담긴 **시편 42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국 가곡**과 **흑인 영가**까지.

감동으로 피어나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합창의 순간이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첫 번째 무대,  
<합창, 피어나다>에서 펼쳐집니다.

Voices in Bloom

서울시합창단 명작시리즈 I

# 합창, 피어나다

새봄, 꽃처럼 피어나는 합창의 향연

Program

## 1부 — 오르간과 함께하는 무대

오르간 | 이수정

---

**Festival Te Deum**

Benjamin Britten

---

**Psalm 42**

Felix Mendelssohn

1. Chor | Wie der Hirsch schreit
2. Arie | Meine Seele dürstet
3. Rezitativ und Chor | Meine Tränen sind
4. Chor | Was betrübst du dich
5. Rezitativ | Mein Gott, betrübt ist meine Seele
6. Quintett | Der Herr hat des Tages verheißen
7. Schlußchor | Was betrübst du dich meine Seele

# 합창, 피어나다

새봄, 꽃처럼 피어나는 합창의 향연

Program

## 2부 — 봄과 자연을 담은 무대

思親 사친 (어머님 그리워) 신사임당 시 | 이현철 곡

무언으로 오는 봄 박재삼 시 | 조혜영 곡

고래 떼의 합창 이강백 시 | 이건용 곡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 | 윤학준 곡

돌아오는 꽃 도종환 시 | 임태규 곡

Deep River arr. Alice Parker, Robert Shaw

The Nightingale arr. Dan Forrest 바이올린 | 김지영

Ma Navu (How Beautiful) arr. Audrey Snyder

I Can Tell The World arr. Moses Hogan

---

# Program Note

---

## [ 1부 ]

### **Festival Te Deum Benjamin Britten**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1944년 세인트 마크 교회 100주년 기념을 위해 작곡한 이 곡은 전통적인 'Te Deum laudamus(주 하느님, 찬미하나이다)'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오르간과 합창의 절묘한 조화, 섬세한 다이내믹 변화, 그리고 독창적인 화성 진행이 특징이며, 경건함과 장엄함 속에서도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브리튼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적 언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

### **Psalm 42, Op. 42 Felix Mendelssohn**

멘델스존이 1837년에 작곡한 이 곡은 루터 번역의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를 텍스트로 삼은 칸타타 형식의 작품이다. 독창, 합창, 관현악이 어우러지며 인간의 고통과 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위로와 희망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낭만주의 초기의 섬세한 감성과 고전적 균형미가 조화를 이루며, 멘델스존 특유의 정제된 서정성과 투명한 대위법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 [ 2부 ]

### **思親<sup>사친</sup> (어머님 그리워) 신사임당 시 | 이현철 곡**

이 곡은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화가 신사임당이 지은 시조 '사친(思親)'에 작곡가 이현철이 곡을 붙인 작품이다. 깊은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정서가 담긴 이 시조는, 강릉의 풍경과 일상적 장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한다. 작곡가는 한국적인 선율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고전 시조의 운율을 존중하면서도 풍부한 정서와 음악적 울림을 전달한다.

---

### **무언으로 오는 봄 박재삼 시 | 조혜영 곡**

조혜영 작곡가는 박재삼 시인의 서정적인 시 '무언으로 오는 봄'에 곡을 붙이며,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진실을 담아내는 시의 정서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봄처럼, 곡 전체는 절제된 표현과 여백의 미를 통해 자연의 순리와 존재의 본질에 다가간다.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선율은, 시인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고요히 전달하며 긴 여운을 남긴다.

---

# Program Note

---

## 고래 떼의 합창 이강백 시 | 이건용 곡

이건용 작곡가의 '고래떼의 합창'은 창작 칸타타 「울산, 내 사랑」의 일부로,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인 고래와 바다를 소재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자연의 생명력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수천 마리의 고래떼가 바다를 가르며 움직이는 모습을 다성부 합창으로 형상화하며,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음악에 담아내었다.

---

##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 | 윤학준 곡

조동화 시인의 간결하면서도 강한 울림을 지닌 시 '나 하나 꽃 피어'에 윤학준 작곡가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입혀,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노래한다. 잔잔하게 시작하여 점차 확장되는 음악은, '나와 너'의 울림이 더해져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단순한 언어 속에 담긴 깊은 진실을 섬세한 음악으로 풀어낸 이 곡은, 작은 변화의 힘과 연대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

---

## 돌아가는 꽃 도종환 시 | 임태규 곡

도종환의 시 '돌아가는 꽃'은 피고 지는 꽃처럼 덧없는 삶의 순환을 담담히 노래한다. 임태규 작곡가는 이 시에 절제된 선율과 섬세한 감정을 입혀, 사라짐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조용히 드러낸다. 이 곡은 제6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작곡부문 2위 수상작으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작품이다.

---

## Deep River 편곡 Alice Parker, Robert Shaw

'Deep River'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노예 시절 부른 대표적인 흑인 영가로, 고통과 억압을 넘어 자유와 안식을 향한 열망을 담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다"는 노랫말은 단순한 종교적 상정을 넘어,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을 표현한다. Alice Parker와 Robert Shaw의 편곡은 이 영가의 내면적 울림을 더욱 풍부하게 살려내며, 절제된 화성과 따뜻한 선율로 곡의 영성과 감동을 고조시킨다.

---

## The Nightingale 편곡 Dan Forrest

영국 민요를 바탕으로 한 'The Nightingale'은 봄날 아침, 한 병사와 젊은 여인의 우연한 만남과 교감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이야기이다. 자연의 풍경과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은 가사 위에, Dan Forrest는 따뜻하고 세련된 화성으로 민요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되살려낸다. 바이올린 선율과 함께 연주되는 풍부한 합창 텍스처는, 한 순간의 낭만과 설렘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

# Program Note

---

## **Ma Navu (How Beautiful)** 편곡 **Audrey Snyder**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서(52:7)의 구절을 바탕으로 한 'Ma Navu'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찬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평화와 기쁨의 도래를 알리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니며, Audrey Snyder는 이를 명료한 화성과 따뜻한 선율로 풀어낸다. 고대의 언어가 현대의 합창 속에서 새롭게 되살아나며, 간결한 구조 속에 평화의 의미를 조용히 전하는 작품이다.

---

## **I Can Tell the World** 편곡 **Moses Hogan**

Moses Hogan의 대표적인 흑인 영가 편곡 작품인 'I Can Tell the World'는 주님이 내 삶에 베풀어주신 구원과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확신과 감격으로 가득한 곡이다. 반복되는 리듬과 강렬한 에너지는 공동체의 찬양과 증언의 열기를 생생히 전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힘 있게 드러낸다. Moses Hogan 특유의 정교한 리듬 처리와 다이내믹한 구조는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강한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 Profile



## 지휘 박동희

- 총신대학교 학사, 서울신학대학원 석사 졸업
- 미국 신시네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합창지휘)
- 한세대학교 겸임·초빙교수 역임, 동덕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외 다수 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강릉시립합창단, 한국대학합창단 외 다수 합창단 지휘자 역임
- 현) 단국대학교 외래교수,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새문안교회 예본 찬양대 지휘자, 코랄레움인서울 예술감독 겸 지휘자,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 오르간 이수정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오르간 전공)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Master of Musik) 및 최고 연주자과정(Konzert Meisterklassen) 졸업
- Ad infinitum foundation 장학금 수여
- 현) 클레기움 보칼레 서울, 클레기움 무지쿰 서울 오르가니스트



## 바이올린 김지영

-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
- 독일 칼스루에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KA) 및 최고연주자 과정(KE) 최우수 졸업
- 독일 트로싱엔 음대 바로크 바이올린(KA) 최우수 졸업
- 현) 고음악 전문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파 서울' 리더/악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민대 출강

## Psalm 42



소프라노 정선혜



테너 김재화



테너 이용희



베이스 나한유



베이스 박태영

## Festival Te Deum

## 돌아오는 꽃



소프라노 이상윤



메조소프라노 김지은



피아노 박성은



피아노 백동현



## 서울시합창단 SEOUL METROPOLITAN CHORUS

**합창, 그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우리가 느낀 감동의 메아리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합창단이 추구하는 합창이다.

서울시합창단은 예술적 경지를 잘 표현하는 합창단,  
그래서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합창단의 길을 가고자 한다.

서울시합창단은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과 함께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정서함양, 문화 창달 기여를 목적으로 창단되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음악사적 걸작과 국내외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폭넓고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나며 합창음악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 소프라노

진화신 한은진 최선울 정주연  
배우선 정선혜 허진아 김태희  
박은혜 이상윤 신채림

### 알토

조영화 윤경희 이선아 이강희  
남혜덕 김오수 광경안 김지은  
전다은 김수진

### 테너

류승각 정보람 한근희 한상희  
김재화 김민수 이용희 김재성

### 베이스

신재훈 김홍민 장철유 권상원  
김형수 최은수 박태영 나한유  
최승원

### 반주

박성은 백동현

### 총무

배승현

### 악보

한태호

#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안호상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

## 공연제작2팀

팀장 김아림

팀원 채준식 이지향 이현주 채수경 신기루  
류성광 김보름 이해민

## 공연장운영팀

팀장 김지민

팀원 강보경 최병훈 이정연 임아라 강민재  
김지성 구지휴 최민주 이연서 차주윤  
김지연 유혜리

## 공연DX팀

팀장 김여향

팀원 강봉진 조계성 배유진 김예지 하수정  
유정아 류다혜 박세현 진푸름 서경은

##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김화영

팀원 김석경 윤문성 손귀영 한채현 이재효  
황정연

## 무대기술팀

팀장 김수현

책임안전관리자 이종덕

무대감독 이민재 유병근 이기훈 장연희 정보배  
김동현 김동균 이 준 주무형 전새미  
송은지

무대기계 안종철 김상두 서민원 김 정 박정길  
전혜연 이민우 유지수 서동진

음향 김우람 조영진 이효원 강병권 김경민  
채소영 남윤수 김단경 박창순 최은식

조명 노준식 김학철 조현권 김 권 설정식  
김정태 양용환 변호연 김태진

영상 배준호 한완주 장인표 류병현

의상소품 변미라 천지연 곽내영

행정 민제희

